

6월 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0.15%↑·S&P 0.25%↓... "바닥감지"vs"실업률 부담"	미 증시가 갈지(之)자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음. 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12.89포인트(0.15%) 상승한 8,763.13을 기록했고, S&P500지수는 2.37포인트(0.25%) 떨어진 940.09, 나스닥 지수도 0.60포인트(0.03%) 내려선 1,849.42로 장을 마감했음. 이로써 다우지수는 이번 한주간 3.1%,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3%, 4.2% 상승했음. 이날 발표된 지난 5월 비농업부분 고용 감소폭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심리가 호전되었으나 실업률이 9.4%로 26년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 상승탄력이 확대되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했음. 최근 상품가격 상승세와 달러 약세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하며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연중 최고치인 3.91%까지 치솟았고 이에 따라 모기지 및 소비자 대출 금리 상승과 이로인한 경기회복 지연 우려를 불러 일으키며 증시에도 악재가 되었음.
유가 70불 찍고 하락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으나 수요 부진 전망과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마감했음.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날에 비해 배럴당 37센트(0.5%) 떨어진 68.44달러로 마감했음. WTI는 이날 장중 70.32달러까지 상승, 올들어 처음으로 70달러를 넘어섰음.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부분 고용감소가 34만 5,000개에 그친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침체 탈피 기대가 확산된 점이 강세 요인이 되었음.
고용, 드디어 바닥 도달...실업률은 부담	미국 노동부는 5일 비농업부분고용자수가 지난달 34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이는 52만명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크게 호전된 것임. 또 전달의 50만 4,000명 감소(수정치)와 비교해서도 실직 추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며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경기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호전된 수치임. 비농업 부문 고용감소는 지난 1월 74만 1,000개로 최대를 기록한 바 있음.

제목	주요 내용
中, IMF 채권 500억弗 매입 계획	IMF의 재원 확충은 지난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다뤄졌으며, 회담에선 IMF의 재원을 5,000억달러 늘려 현재의 3배에 달하는 7,500억달러까지로 확대키로 결의.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중국이 400억달러 규모의 IMF 채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중국은 그 이상 매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 중국 인민은행 산하 SAFE는 약 20억달러 가량을 운용하고 있음.
블랙록, 英 바클레이즈 BGI 인수전 `우위	블랙록은 이미 전해진 대로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GI)를 100억달러 이상에 인수하기 위해 바클레이즈와 협상중. 아직 협상은 초기 단계이며, 바클레이즈는 또 뱅크 오브 뉴욕 멜론과도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바클레이즈는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소재 BGI 산하 i세어즈를 사모펀드 CVC 캐피탈 파트너스에 44억달러에 매각키로 했으나, 6월18일까지 더 나은 인수 주체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윤호 장관 "한-미 녹색협력 최우선 추진	이 장관은 8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하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양국이 모두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발전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관은 GM의 전기자동차인 시보레 볼트에 LG화학(051910)의 연료전지가 공급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양국이 녹색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사업기회 창출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상호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도모할 경우 그린 경제를 한층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
국내 대표기업들 글로벌 경쟁서 `발군'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5일 현재 각각 22.4%, 111.3% 급등.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과 PC, 휴대전화 등 상품군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반도체 전문업체인 하이닉스는 일본의 엘피다(81.6%)와 미국의 마이크론(88.3%)보다 상승폭이 컸음. 대만의 파워칩(9.7%), 난야(-2.8%)보다는 월등히 높았음.
현대모비스, 세계車부품사 19위...8단계상승	7일 미국 자동차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톱100` 순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88억4,5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9위에 랭크됐음. 이 조사는 지난해 전세계 자동차부품업체들의 OEM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